□권두언□

자랑스러운 정보처리 학회지

한국정보처리학회가 1993년 정보통신부의 인가를 받아 출범하여 5,000여명의 회원을 거느린 대학회로 급성장한 것은 오로지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그 동안의 역대 회장님들과 임원들의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덧붙여 학회 사무국의 숨은 노고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학회는 정보처리 및 정보과학 전 분야의 학문적 발전을 위해 설립되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학·연·산의 연계에 의한 국내 정보통신 산업의 발전입니다. 이를 위해 IT21, 소프트웨어 엑스포 등의 행사를 비롯하여 크고 작은 행사에 산업계와 연구계가 함께하여 왔고 우리 학회가 이만큼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되어왔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간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랑 「정보처리 학회지」입니다. 학회의 창립이래 꾸준히 매호 가장 시의 적절한 특집을 마련하여 학·연·산 모두에게 최신의 정보통신 기준을 집대성하여 잘 정리된 형태로 우리 모두에게 훌륭한 정보를 제공해 온 것은 우리 모두 익히 알고 있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수많은 독자들이 출간을 기다리며 오래도록 가까이 두고 좋은 참고가 되는 「정보처리 학회지」 그것이 우리 학회지의 위상이며 우리 학회지의 역할입니다. 매호마다 해당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써주시는 주옥같은 원고는 우리 학회지 성장의 주춧돌이며 깔끔하고 읽기 좋게 학회지를 기획하고 편집하고 만들어 주시는 편집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편집위원들과 사무국 직원들의 노고는 아무리 칭찬하고 감사드려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번 9월호만 보아도 인터넷 뱅킹을 주제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원고와 사례 발표 등의 꾸며져 있는데 아마도 「인테넷 뱅킹」이라는 주제로 이만큼 수집·정리된 정보는 국내에서 처음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모든 집필자와 편집위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솟아오릅니다.

앞으로도 자랑스러운 정보처리학회지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더욱 성장하기를 기대하면서 학회지를 꾸미시는데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정보처리학회
부회장 **정 진 욱**